한국 양궁 미래 주역들이 29일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U13부 경기에서 과녁을 향해 힘차게 시위를 당기고 있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양궁·역도·사격·육상…광주·전남 금맥 터졌다

광주 운리중 이현서 양궁 남자 60m 금 '2관왕'
체육중 신한승 역도 3관왕·사격 박지민 개인·단체 금
전남 김태빈·최지우 육상 금…바둑 남녀 동반우승

광주·전남 선수단이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연일 금맥을 캐고 있다.

광주 선수단은 대회 첫날 양궁 남자 U16 개인전에서 이현서(운리중 2)가 60m에서 대회 첫 금을 따낸데 이어 50m에서도 금메달을 수확, 대회 첫 2관왕에 올랐다.

광주 남자 양궁이 소년체전에서 2관왕을 한 것은 2005년 제34회 임지완(당시 광덕중 3) 이후 17년 만이다

광주는 역도와 사격에서도 다관왕을 배출했다.

29일 안동대 체육관에서 열린 U16 남자 +102kg급에 출전한 신한승(광주체중 3)은 인상, 용상, 합계에서 1위를 들어올리며 대회 첫 3관왕 주인공이 됐다.

사격에서도 박지민(광주체중 3)이 U16 공기권총 개인과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다.

박지민은 개인전에서 569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최태빈·조은준·김지윤과 팀을 이룬 단체전에서도 1681점을 합작하며 2관왕에 올랐다.

광주는 검도 U13 광주선발(권석·김우진·옥하준·윤찬희·임도윤·허경도)이 금메달을 따낸데 이어 볼링 여자 U16 2인조(고민서·정윤희 우산중)에서 값진 금메달을 보탰다.

조정 여자 U16 싱글스컬에서 김지선(광주체중 3)이 금메달을 땄다.

레슬링에서는 남자 U16 자유형 -48kg급 이태양(광주체중 3)과 그레코로만 -110kg급 이재혁(광주체중 3)이 1위를 차지했다.

전남선수단은 김태빈(목포서부초 6)이 육상 포환던지기에서 첫 금을 선사한데 이어 육상과 양궁에서 2관왕을 배출했다.

29일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 U16 세단뛰기에서 김종인(광양백운중 3)이 14.06m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멀리뛰기에서도 7m0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낸 김종인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양궁에서는 조한이(풍덕중 3)가 여자 U16 개인전 40m와 30m에서 1위를 기록하며 2관왕에 올랐다.

육상 여자 U16 400m에 출전한 최지우(구례여중 1)도 58.19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레슬링에서는 남자 U16 그레코로만 -48kg급 이승현(전남체중 3)과 -65kg급 김동찬(전남체중 3)이 각각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태권도에서는 전남대표 박정훈(동백초 6)이 남자 U13 -38kg급 결승에서 전영현(충북 흥덕초 6)을 68-2로 대파했다.

전통 강세인 바둑에서는 한국바둑중이 남녀 단체전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이태섭과 이서영(이상 한국바둑중 1)은 종목별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쇼트트랙 최민정 '위대한 재기의 선수'

ISU, 5가지 사례 중 소개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사진)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선정한 '2021-2022시즌 위대한 재기의 순간 5선'에 이름을 올렸다.

ISU는 28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올 시즌 각종 시련을 딛고 우뚝 일어선 5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최민정을 네 번째로 언급했다.

ISU는 먼저 "최민정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한 최고의 선수였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네덜란드 쉬자너 스휠팅에게 세계 1위 자리를 내주고 갖가지 부상으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채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최민정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악재를 극복하고 베이징올림픽 여자 1500m 금메달, 여자 1000m 은메달, 여자 3000m 계주 은메달 등 3개의 메달을 거머쥐었고,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금메달 4개를 휩쓸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민정이 '위대한 재기의 순간'에 선정되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ISU는 최민정 외에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차지한 중국대표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겨내고 베이징올림픽 남자 500m 금메달을 딴 사오앙 류(헝가리), 만 38세에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5,000m 계주 금메달 획득을 이끈 캐나다 샤를 아믈랭을 소개했다.

대표팀 동료 라라 판 라위번을 하늘나라로 떠나 보내고 베이징올림픽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네덜란드 여자 대표팀도 빠지지 않았다.

당시 네덜란드 대표팀 선수들은 시상식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드는 특별한 세리머니를 펼쳐 감동을 안겼다.

/연합뉴스

육상 남자 계주팀 '실전 테스트'

김국영 등 400m 대표팀 내달 2~6일 동아게임 金 태국 대표팀 초청

한국 육상 남자 계주팀이 동남아시안(SEA)게임 남자 400m 계주에서 우승한 태국 대표팀을 상대로 '실전 테스트'를 한다.

대한육상연맹은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경상북도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리는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기간 중 '남자 단거리 계주팀'을 소집해 실전을 치르기로 했다.

남자 100m 한국 기록(10초07)을 보유한 김국영, 지난 24일 10초18로 선수 기준 한국 역대 2위이자 대학생 기록을 작성한 이준혁, 남자 200m 한국 기록(20초40) 보유자 박태건, 100m 한국 3위 이규형, 고승환, 신민규 등 6명이 400m 계주 대표팀에 뽑혔다.

대한육상연맹은 '경쟁력'을 점검하고자, 현실적으로 6월 한국에 올 수 있는 팀 중 기록이 가장 좋은 태국 대표팀을 초청했다.

태국 대표팀은 5월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동남아시안게임 남자 400m 결선에서 38초58로 우승했다.

아직 남자 400m 계주를 치른 팀이 많지 않지만 2022년 아시아 팀 중 1위, 세계 8위에 해당하는 좋은 기록이다.

한국 남자 400m 계주 기록은 2014년 오경수, 조규원, 김국영, 여호수아가 세운 38초74다.

동남아시안게임 태국 대표팀의 기록이 한국 기록보다 0.16초 빠르다.

태국 대표팀 명단에는 눈에 띄는 이름도 있다.

분손은 동남아시안게임 남자 200m에서 20초37로 우승했다.

세계육상연맹에 따르면 만 16세 이하 남자 200m 세계 최고 기록은 1986년 8월생인 우사인 볼트가 2003년 7월에 작성한 20초13, 2위 기록은 2004년 1월생 이리언 나이턴이 2020년 3월에 세운 20초33이다.

대한육상연맹은 이번 태국 대표팀 초청처럼, 계주 대표팀이 실전을 치를 환경도 꾸준히 조성할 계획이다.

실업 1년 차인 비웨사 다니엘 다니엘 가사마, 박원진 등 20세 이하 계주팀에게도 태국 대표팀과 함께 뛸 기회를 준다.

한국 남자 시니어 계주 대표팀은 3일 오후 1시 30분에 태국 대표팀과 400m 계주 경기를 펼친다. 4일 오전 10시 20분에는 한국 20세 이하 대표팀이 합류해 한국 시니어, 태국 대표팀에 도전한다.

'세계랭킹 1위' 우상혁이 출전하는 남자 높이뛰기 대학·일반부 경기는 3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톰프슨, 프리폰테인 여자100m 우승

10초79…'신성' 리처드슨 2위

도쿄올림픽 단거리 3관왕이자 여자 100m 역대 2위 기록을 보유한 일레인 톰프슨(30·자메이카)이 2022 프리폰테인 클래식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여자 100m에서 우승했다.

톰프슨은 29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여자 100m 결선에서 10초79로 레이스를 마쳤다.

과감한 발언과 행동으로 '열성 팬'과 '안티 팬'을 동시에 거느린 '신성' 셔캐리 리처드슨(22·미국)은 10초92로 2위에 올랐다.

이날 헤이워드 필드는 비가 오락가락했고, 톰프슨의 몸 상태도 최상은 아니었다. 톰프슨은 최근 허벅지 통증에 시달렸다.

톰프슨은 2021년 8월 23일에 열린 프리폰테인 여자 100m 결선에서 작성한 개인 최고 10초54, 셸리 앤 프레이저-프라이스(36·자메이카)가 보유한 올 시즌 최고 10초67을 넘어서지 못했다.

하지만, 현역 최고 스프린터의 자존심은 지켰다.

톰프슨은 경기 뒤 "건강하게 대회를 마치고 우승해 기쁘다. 현재까지 과정은 긍정적이다. 오늘 기록도 여러 환경을 생각하면 괜찮았다"며 "이제 다음 달 열리는 자메이카 선수권대회를 준비한다. 7월에 (세계선수권을 치르는)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2016 리우데자네이루 100m·200m, 2020 도쿄 100m·200m·400m계주)를 딴 톰프슨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1개 수확했을 뿐, 개인 종목에서 우승한 적은 없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범죄도시 2
2관	범죄도시 2
3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몬스터 싱어: 매직 인 파리
4관	범죄도시 2
5관	범죄도시 2
6관	범죄도시 2
9관	범죄도시 2
7관 씨네커플	범죄도시 2, 그대가 조국,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8관 씨네커플	안녕하세요, 오마주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Would You Follow Maytree? :)
일시 : 2022.06.15.(수)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문의 : 062-613-823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5.03.(화)~31.(화)
매주 화요일 ~ 토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